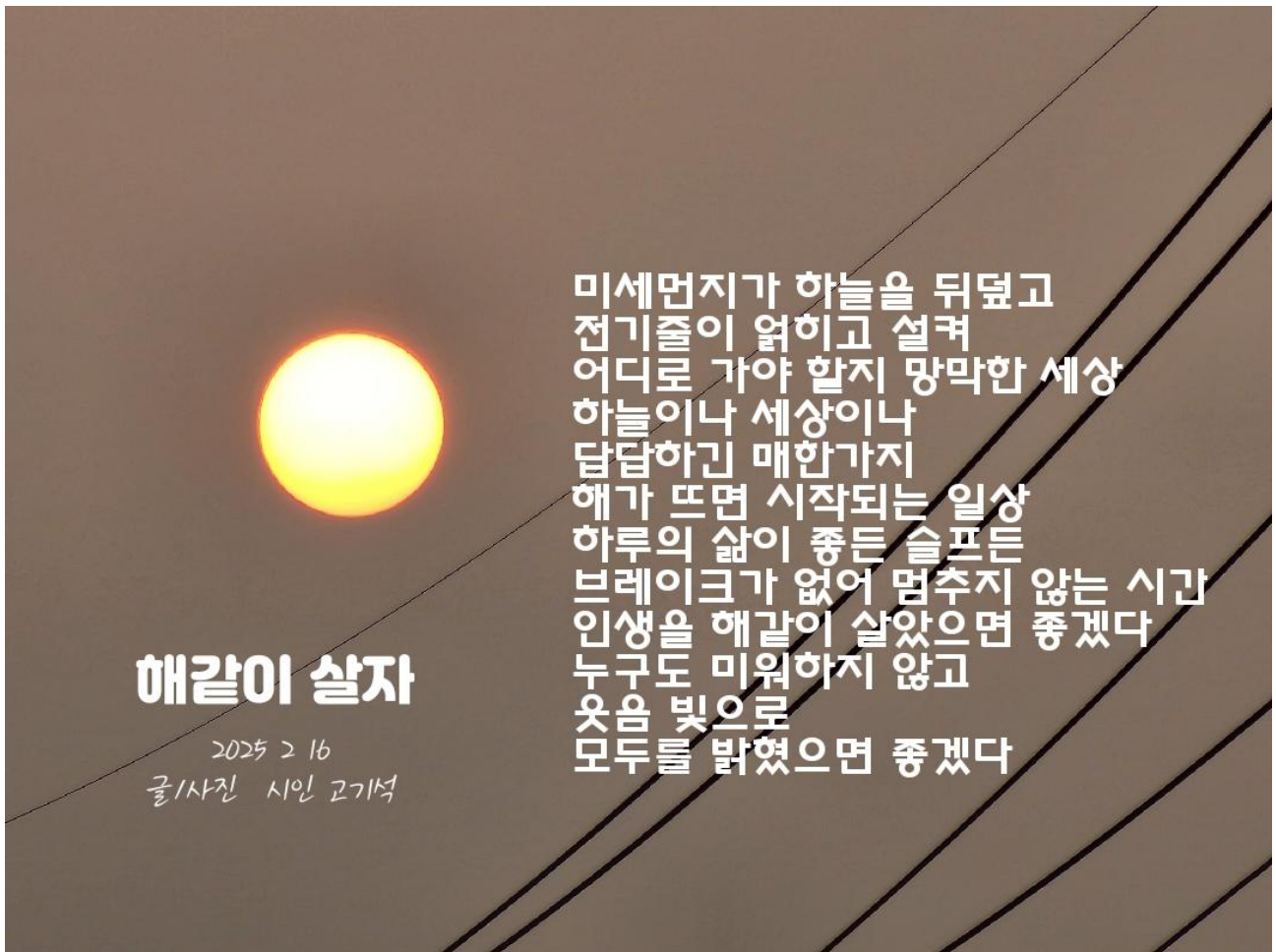


해같이 살자

해가 어디 떠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디로 가야하는 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늘을 보면 통신선, 전기선, 고압선 얹히고 섞혀 새들고 방향을 잡기 어렵다. 거기다 미세먼지가 뒤 덮고 있으면 안치앞도 보기가 힘들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만들어 가는 해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고기석-

- 해같이 살자

해같이 살자



해같이 살자

2025 2 16

글/사진 시인 고기석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전기줄이 얹히고 설켜
어디로 가야 할지 망막한 세상
하늘이나 세상이나
답답하긴 매한가지
해가 뜨면 시작되는 일상
하루의 삶이 종든 슬픈
브레이크가 없어 멈추지 않는 시간
인생을 해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웃음 빛으로
모두를 밝혔으면 좋겠다